

목포해수청,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 여객선 운항 횟수 322여회 증회, 318천명 이용 예상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섬 주민의 원활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7월 25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18일간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31만 8천명으로 전망되며, 방학과 휴가철이 겹쳐진 8월 3일(토)에는 2만 3천여명이 몰리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기간 중에는 여객선의 증선·증회를 통해 평소보다 322회 증가한 6,910회를 운항하며,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완도-청산, 당목-서성항로는 여객선 1척을 각각 추가 투입하고, 목포-홍도, 화홍포-소안 등 총 6개 항로는 운항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에 앞서 여객선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사전 실시하고, 대책 기간 중 특별교통 대책반을 상시 운영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휴가철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출항 10분 전에는 승선을 완료하는 등 여객선 승하선 혼잡에 대비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책임자	사무관	김왕식 (061-280-1640)
		담당자	주무관	김일선 (061-280-1642)

□ 특별수송 개요

- (특송기간) '24.7.25.(목)~8.11.(일)/18일 * ('23년) 7.25(화)~8.15(화) / 22일
- (예상수요) 40항로 318천명(일평균 17천명) 이용 예상

<< 수요 전망 >>

구 분		'23년 동기실적 (A)	'24년 수송계획 (B)	전년대비 (B/A,%)	수송수요 일평균		수송수요 최고일	
					'23년 (실적)	'24년 (예상)	'23년 (실적)	'24년 (예상)
여객 (명)	목포	195,407	202,000	103	10,856	11,222	15,900	15,000
	완도	113,114	116,500	103	6,284	6,472	9,397	85,00
계		308,521	318,500	103	17,140	17,694	25,297	23,500
차량 (대)	목포	53,361	55,200	103	2,964	3,067	3,764	3,400
	완도	43,203	44,500	103	2,400	2,472	3,292	2,800
계		96,564	99,700	103	5,364	5,539	7,056	6,200

* 수송수요가 가장 많은 날은 '24.8.3.(토)로 예상됨

□ 주요대책

- (수송능력 확대) 증선(58척→60척/2척) 및 증회(6항로 272회)를 통해 평시 대비 운항횟수를 322회(일평균 18회) 증회
- (안전관리 강화) 여객선 및 터미널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KOMSA·여객선사와 협력하여 화물 고박, 승하선 안전관리
- (주차장 확보 및 인파관리) 선착장·항만 인근 임시 주차장 확보(공휴지 활용) 및 혼잡 선착장 교통정리(지자체, 경찰서 공문 협조)
- (특송대책반 운영) 특송기간 중 근무반*을 편성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긴급상황에 대응

* 일 3명(주무관2, 해사안전감독관1) 근무(08:00~20:00) / 과장은 근무 또는 유선대기